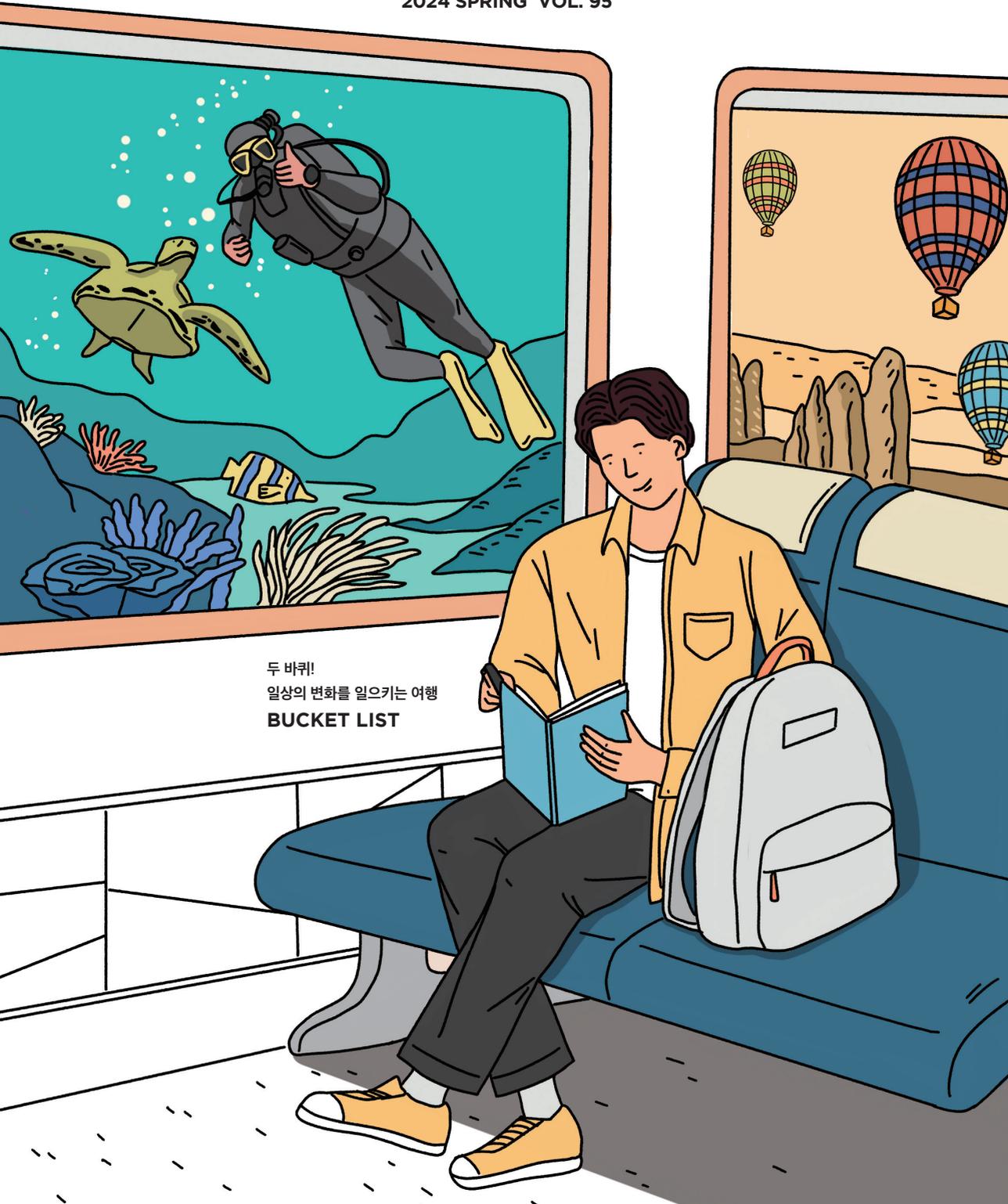


NEXEN TIRE MAGAZINE

HELLO NEXEN

2024 SPRING VOL. 95



두 바퀴!
일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행
BUCKET LIST



www.nexentire.com



SPECIAL THEME

두 바퀴, 변화의 시작이 된 여행

BUCKET LIST

헬로우 넥센

2024 SPRING(통권 95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4년 4월 2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정재환 팀장, 김희진 책임

기획 및 출판 (주)대통기획 02-2269-3613

ISSN 2765-2904



헬로우 넥센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06 #TREND CODE

백건이 불어일행
지금은 경험주의 시대!

10 MY BUCKET LIST

유쾌한 미래클을 꿈꾸는
넥센인의 버킷리스트?

14 ON THE ROAD

X세대부터 MZ까지! 꼭 한 번 가보고 싶다
로컬의 힘, 힙함을 담은 공간들

20 CULTURE

영동한 과학자들의 버킷리스트
노벨상 그 이상의 가치 '이그노벨상'

24 HEALING NOTE

새로운 모험의 영감을 주는
여행가들의 문장들



STATION 1

- 28 **Tire Tech**
첫 인연이 오래오래 소중한 인연으로
타이어테크 화원점
- 32 **해피타임**
양산공장 직원들과 함께한
퇴근 후, 영화 관람 이벤트
- 36 **라이프 구독**
봄바람 타고 문 앞에 향기가 배달됐어요~
꽃 구독 서비스 체험
- 40 **착한챌린지**
지구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늘 하루는 #CAR FREE DAY
- 44 **NEXEN CSR 1**
양산공장 봉사회 '희망나눔미'
장애인 밀반찬 배달 봉사
- 48 **NEXEN CSR 2**
양산공장 연탄 배달 봉사
마음으로 나른 10,000장의 온기



STATION 2

- 52 **당신의 알고리즘**
넵다 뛰면 안돼! '초보 러너'의 알고리즘
- 56 **그린 인포**
극단적 이상 기후 속에서 탄생한 위기의 신조어
- 60 **컬처 티켓팅**
문화적 영감이 솟아오른다! 예술이 있는 넥센인의 심
- 66 **알쓸IT잡**
CES 2024 속,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 70 **ISSUE 1**
'LEAP PLUS' 2024년 시무식 개최
- 72 **ISSUE 2**
땀의 성장과 과감한 도전, 제2회 퍼플어워즈 시상식
- 74 **ISSUE 3**
사내 원데이 클래스, 가족 여권 케이스 만들기
- 76 **ISSUE 4**
'넥센 원가드 스노보드팀' 선수단과 스노보드 아카데미 성료
- 78 **ISSUE 5**
제66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 80 **NEWS**

LET'S TRY IT!

종이 위에 '내 생애 꼭 하고 싶은 일'이라고
적고 보니 어쩐지 너무 거창한 것 같아,
무엇부터 써야 할 지 막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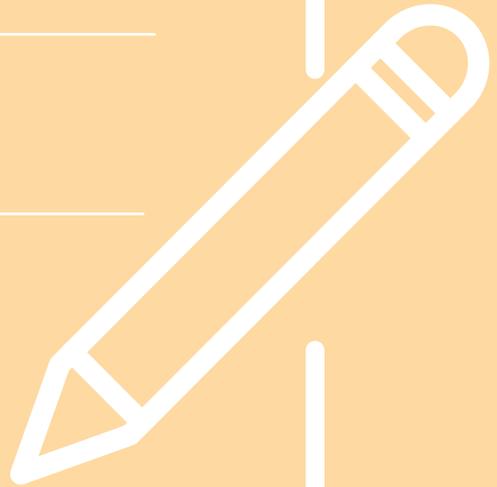
눈물 날 정도로 실컷 웃어 보기
낯선 여행지에서 소울메이트 만나기
흙길 위를 맨발로 걷기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 마사지 해주기

작지만 소중한 버킷리스트를 세우는 동안
우리의 가슴은 금세 설렘으로 차오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삶의 숨은 행복을 찾는
나와의 빛나는 약속을 지금 시작하세요.









SPECIAL THEME

BUCKET LIST

백견이 불여일행 지금은 경험주의 시대!

2024 여행 트렌드인 'S.O.F.T'만 봐도 최근 우리 사회에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짧은 여행 일정을 선호하며(Short), 자주 떠나며(Often),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나며(Free), 여행을 부르는 계기만 있다면 출국한다(Trigger)는 의미다. 과거에는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준비해 떠났다면, 최근에는 짧게 자주 쉽게 떠나는 '다다익선 여행족'이 많아지는 추세다. 사람들이 이처럼 경험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Text. 한다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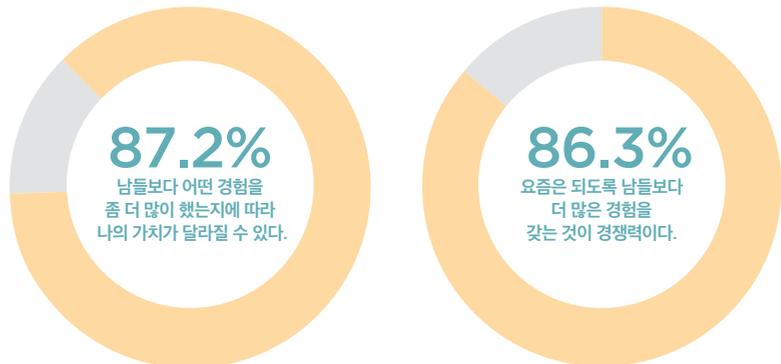
경험치가 경쟁력인 시대?

지난 몇 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였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곧 과시의 주된 방법이었던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그리고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자산 증식의 관점'이 곧 그 사람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시대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처럼 2010년대 이후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사회가 '소유'에서 '경험'으로 고도화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했다. 남들보다 어떠한 경험을 더 많이 해보았는가 하는 경험 축적의 관점으로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바라보기 시작하며, 경험이 소유보다 더 중시되는 사회로 이행한 것이다.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남을 수 있도록 돕는 SNS상의 기록은 경험소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2023년 7월 전국 20대~6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험과 시간 소비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요즘은 되도록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는 것이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7.2%로 나타났으며, '남들보다 어떤 경험을 좀 더 많이 했는지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86.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특히 요즘 소비자가 추구하는 '경험주의'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하나의 경험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해보는 것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경험과 시간 소비 관련 인식 조사(2023.06)





공간 구독



상쾌한 팝업스토어

다채로워진 경험의 얼굴들

“잠깐만 빌릴게요!”

구독으로 경험하기

경험주의 시대, 특정 물건을 위해 거금을 들여 소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구독 경제’가 각광받고 있다. 보통 구독이라 하면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잡지나 OTT 콘텐츠 서비스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요즘은 구독의 대상이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구독 서비스가 익숙한 2030세대 1인 가구를 겨냥해 다양한 기업에서 구독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커피에서부터 점심 도시락은 물론이고, e-book 서비스와 OTT 서비스, 의류와 가전·가구, 심지어는 출퇴근 자동차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구독이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도 크게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구독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공간 구독’은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례로 한 스타트업은 청년 1인 가구들이 좁은 원룸에 살며 답답함과 외로움을 호소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거실’ 공간을 공유하는 사업을 펼쳐 화제가 된 바 있다. 편히 쉴 수 있는 거실 라운지 공간을 구독하는 사업인 것이다. 입장료만 내면 마치 집처럼 꾸며진 공유공간을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독서나 영화감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함께 온 사람들과 시간을 즐길 수도 있어 이용자의 반응이 뜨겁다. 이러한 구독 경제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KT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26조 원에 그쳤던 구독 경제 시장 규모는 2020년 49% 증가한 40조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는 2025년에는 100조 원까지 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밝히기도 했다.



커피 구독

“콘셉트를 소비해요”

팝업으로 경험하기

요즘 소비자들은 무엇을 구매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기보다는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다. 예를 들어, 특정 팝업스토어에 이색적인 콘셉트를 경험하러 방문한 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식이다. 실제로 국내 팝업스토어의 성지라고 불리는 '성수동'은 그 인기가 여전하다. 한국 부동산산업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성수동 중대형 상가 상권 공실률은 2.5%에 그쳤다. 서울의 주요 전통 상권으로 꼽혔던 강남, 홍대, 명동과 비교했을 때도 성수동의 공실률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팝업스토어의 인기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백화점에서도 경험적 속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개점 3주년을 맞이한 백화점 '더현대서울'은 기존 백화점의 성공 공식을 거스르며 새로운 역사를 쓴 대표적 예시다. 이곳에서는 매장의 51%를 공원, 폭포 등 빈 공간과 조형물로 채워 공간을 경험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2년 동안 약 300여 개의 팝업스토어를 선보이며 늘 변화하는 공간으로 화제성을 입증했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적 속성을 강조한 덕분일까. 업계 최단기간 연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경험주의 시대는 곧 '시간'의 소중함으로 연결된다. 소유경제에서 경험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시간이 돈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으로 재조명된 것이다. 이러한 탓에 나에게 값진 경험을 가려내는 역량도 중요해지는 추세다. 수많은 경험 중 어떤 경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일상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추가 여가시간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전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중한 시간을 아껴 다가오는 봄에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볼까? 무엇이든 좋다. 서양의 유명한 속담처럼,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일 것이다.



유쾌한 미라클을 꿈꾸는 넥센인의 버킷리스트?

설문기간: 2024년 3월 7일-8일
참여자: 168명

어느덧 2024년도 1/3이 흘렀습니다. 당차게 외친 새해 계획들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나요? 만물이 새롭게 태동하는 봄에 맞춰,
넥센인들의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하며 실천 의지를 함께 높여봐요!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내 인생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본 적이 있다

YES
63.86%

NO 34.34%
기타 1.81%

넥센인들의 10명 중 6명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현재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돌아보고 있었네요.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해내다 보면
스스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 지 방향성이 보일 수 있어요.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계획했던 버킷리스트
달성률은 몇 % 인가요?

50~60%대
28.40%

반 밖에 못했다고 속상했나요?
꾸물거림 분석 전문가 이동귀 심리학과 교수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은 98%를 이룬 거라고 했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미룬 일을 다음에 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네요.
하고자 도전한 벡센인들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90% 이상
1.78%

70~80%대
13.02%

30~40%대
26.04%

20% 이하
24.85%

기타 5.92%

버킷리스트 실천에
태클을 거는
결정적 한방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으름
34.22%



갑작스러운
비용 지출
27.11%

뜻밖의
업무나 가정사
13.78%

기타 4.89%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예상치 못한 인생사
양지원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
1순위이기 때문
남현지

따라주지 않는
체력
12%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8%

애를 안고 있는
와이프의 매서운 얼굴
최임철

내 인생 버킷리스트를
차지하는 주요 화두는?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
25.44%



0순위는
건강
14.47%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이색 취미&도전
20.18%

나를 위한 투자
자기계발
12.72%

기타 2.19%

태어난 아이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 무사히 치르기
택세원

우리 가족 별일없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서용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감사
유민

가장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서 야경 보며 캠핑하기
박다민



미국 그랜드캐년 트레킹
이성일

가족과 생동이 운동화 신기
김기완

패러글라이딩 해보기
김희진

하와이 해변에서 수영복 입고 태닝하기
김영두

아마추어 복싱선수 도전하기
박장수

집 짓기 봉사 활동
김봉수

자서전 쓰기
박인혁

멋진 배경에서 3대 가족사진 찍기
이진명



자유의 여신상 올라가 보기
김성우

오픈레 한 박스 사서 뚜껑만 활아 먹기
김형울

뉴욕 매그놀리아 본점에 가서
 컵케이크랑 바나나푸딩 먹기
김예훈

스테판 커리 은퇴 전까지 NBA 직관
김형모

죽기 전까지 70개 이상 국가를 여행하고 싶어요~
장윤정

내 차고를 가지고 30년 이상 오래된 자동차
 직접 복원 수리하기
전석호

중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오토바이 대륙 횡단
정우영

30살 되기 전까지 익스트림 스포츠 정복하기
박신해



아담한 세컨하우스를 짓고 오토이촌의 삶을 살기
박창근

달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서,
 아내와 영상 통화하기
송민석

SNS 팔로워 10만 찍기
신수연

기타 독학으로 1곡 연주 완주하기
박정현

체지방율 20% 미만 만들기
김건호

X세대부터 MZ까지! 꼭 한 번 가보고 싶다~

**로컬의
힘,**

**힙함을
담아낸
공간들**

최근 여행을 이끄는 화두는 단연 로컬이다. 쓸모를 다해 버려진 양곡창고가 멋진 서점이 되고, 120년 역사의 교회는 아름다운 카페로 다시 태어난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전시공간이자 체험장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힘은 이야기다. 그 지역이 고이 품어온 보석 같은 이야기와 트렌드를 입은 로컬 복합문화공간! 누구나 가고 싶은 핫플레이스로 떠나보자.

Text. Photo 정철훈(여행작가)



HOT PLACE
영종도



INFORMATION

메이드림 카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479번길 42

문의
0507-1351-1904

이용시간
10:00-21:30

입장료
1인 1메뉴

홈페이지
www.fnplace.co.kr



120년된 교회의 환골탈태

당신이 꿈꾸는 환상의 숲, 메이드림 카페

메이드림(MADE 林)은 옛 왕산교회를 리모델링해 선보인 카페다. 공장이나 병원을 리모델링한 카페는 본 적 있지만 교회라니. 독특하다. 왕산교회는 1904년 영종도 왕산에 터를 잡은 뒤, 2006년 건물을 새로 지을 때까지 120년간 영종도를 지켜온 지역 대표 교회다. 메이드림 카페 메인 건물 옆에는 1904년에 지은 단층짜리 구 왕산교회도 여전히 남아있다.

메이드림 카페는 인천국제공항 북측 방조제를 지나 용유로로 들어서면 이내 만날 수 있다. 이정표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서면 저 멀리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메이드림 카페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교회인데, 기존 교회와 달리 천정 위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메이드림 카페와 기독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메이드림 카페는 이름처럼 숲을 테마로 꾸렸다. '태고의 정원'이라 부르는 매장 중앙에 거대한 나무 조형물이 있고, 주변도 온통 초록빛으로 채웠다. 숲처럼 아늑한 매장은 은은하게 스미는 스테인드글라스의 영롱한 빛으로 더욱 신비롭게 느껴진다. 2층과 3층을 잇는 계단 통로 역시 스테인드글라스 느낌의 인테리어로 연출했다. 메이드림 카페에서는 라즈베리 레몬파운드, 소금우유 크림버거 같은 빵과 음료 외에 다양한 브런치도 제공한다.



INFORMATION

F1963

—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20

문의

051-756-1963

이용시간

09:00~24:00(매장별 운영시간 다름)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f1963.com/ko

기계가 대신 예술과 사람으로 복적이다

와이어 공장의 무한 변신, F1963

F1963은 특수선재를 생산하는 고려제강이 설립한 복합문화공간이다. F는 'Factory', 1963은 고려제강이 수영구 망미동에 처음 공장을 설립한 해를 의미한다.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 동안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던 공장은 부산 비엔날레를 계기로 '그린'과 '예술'이 공존하고 '사람'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F1963은 복합문화공간답게 문화시설과 휴게공간을 두루 갖췄다. 이동식 무대와 의자, 음향 반사 구조물이 설치된 석천홀과 증정에 마련한 F1963 스퀘어가 문화시설이라면,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서점 예스24와 커피 전문점 테라로사, 손막걸리 전문점 복순도가, 체코 전통 수제 맥주 펍 Praha993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휴게공간이다. 본관 앞, 소리길이라 이름 붙인 대숲도 F1963의 명소. 짧은 숲길을 거닐며 바람에 서걱대는 대나무를 바라보면 강하지만 유연한 와이어와 대나무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공장 폐수처리장을 아름다운 생태정원으로 꾸민 수련가든도 F1963에서 놓칠 수 없는 곳 가운데 하나다.



HOT PLACE
완주



INFORMATION

삼례책마을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68

문의
063-291-7820

이용시간
10:00-22:00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koreabookcity.com/

양곡창고가 꿈꾸는 문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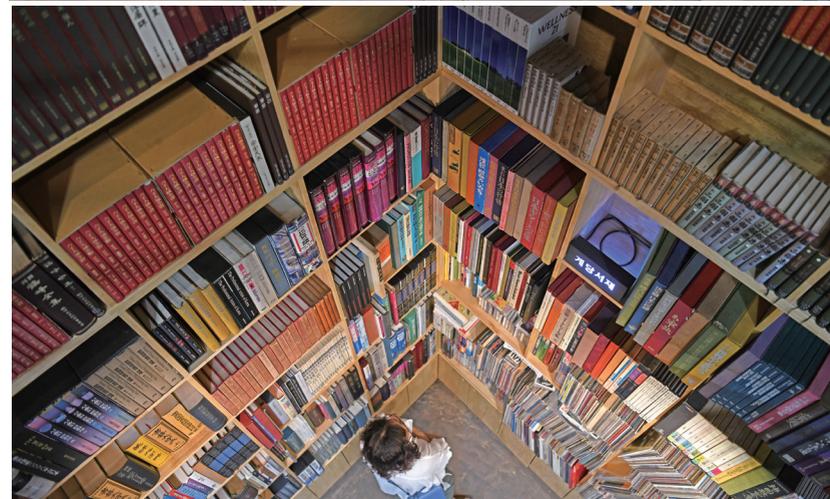
봄벌처럼 화사한 풍경, 삼례책마을

삼례책마을은 낡은 양곡창고를 개조해 북 하우스와 북 갤러리, 책 박물관 등으로 꾸민 복합문화공간이다. 삼례책마을의 중심은 고서점과 헌책방, 카페로 구성된 북 하우스다. 이곳에 10만 권이 넘는 고서와 헌책이 있다. 절판된 소설이나 수필집은 기본이고 1960년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나 백영수 화백의 새벗 엽서 같은 희귀 자료도 보인다. 헌책방 벽 한 칸에 가지런히 걸린, '남은 쌀을 팔읍시다'라는 글귀가 큼직하게 들어간 군정청 포스터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최승희 공연 포스터 같은 옛 포스터들도 흥미롭다. 서가의 책들을 찬찬히 살피다 보면 나만의 추억이 담긴 책을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도 찾아온다.

그러니까, 어릴 적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동화책이나 첫 사랑에게 선물했던 시집 같은 것들. 혹은 그런 책을 만나는 행운이 주어진다면 주저 없이 구입하시길. 저렴한 가격에 혹은 아련한 추억에 이끌려 책 서너 권쯤 구입했다면 헌책방 옆 카페에서 향 좋은 커피 한 잔 마시며 느긋하게 읽으면 된다. 실내가 답답하다면 북 하우스 앞 잔디밭 벤치도 괜찮다. 아니 잔디밭 어디든 상관없다. 삼례책마을에서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곳이 그림책미술관이다. 북 하우스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자리한 그림책미술관도 삼례책마을의 다른 건물들처럼 옛 양극장고를 개조해 꾸몄다.



엉뚱한 과학자들의 버킷리스트 노벨상 그 이상의 가치 '이그노벨상'

괴짜 과학자인 '이그노벨상'은 고정관념이나 일상적 사고로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 기발하고 이색적인 업적에 가치를 두고 수상자를 정한다. 남들은 엉뚱한 상상력이라고 치부하는 생각도 그들은 죽기 전에 해내겠다는 집념으로 무수한 실험에 돌입한다. 실제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 중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도 있다. 모두가 가우뚱했던 발견을 하나의 연구로 증명한 이그노벨상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이 먹는 항우울제를 먹으면 대합조개도 기분이 좋아질까?
 완벽한 홍차 한 잔을 끓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에일 맥주와 마늘과 사워 크림이 거머리의 식욕에 미치는 영향은?
 속옷만 신경 써서 만들어도 방귀 냄새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황당해 보이는 이 물음들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 연구를 반복하는 사람들!
 바로 이그노벨상의 수상자들이다.

평범함을 거부한 빛나는 호기심 천국

이그노벨상 수상자들은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지 않거나, 궁금해도 그냥 지나치는 질문들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몰두한다. 호기심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집념, 그리고 고정관념 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무한한 상상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이 '이그노벨상'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발간하는 유머 과학잡지 <기발한 연구 연감>의 편집장인 마크 에이브러햄스는 1991년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이그노벨상을 만들었다.

"최고의 과학자나 운동선수들을 위한 상은 세계 어디에나 있다. 최악의 영화나 패션을 위한 상도 존재한다. 하지만 자식으로 개구리를 공중에 띄운 과학자나 가라오케를 발명한 사람, 머피의 법칙의 기원이 된 사람을 위한 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1991년까지는."
 -마크 에이브러햄스

'재현해서도 안되고, 재현할 수도 없는 연구에 주는' 이그노벨상의 이름은 기발하고 유별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받는 만큼 '비천한', '보잘것없는'이란 뜻의 이그노블(ignoble)과 노벨(Nobel)을 결합해서 탄생했다. 이 상의 포스터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뒤집어진 채로 들어가 있는데, 이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이그노벨상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1년부터 매년 가을이 되면 하버드 샌더스 시어터에는 노벨상을 받았던 과학자들이 이그노벨 시상식에 참석해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 10개 분야에 오른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건넨다. 괴짜와 천재가 공존하는 자리인 만큼 시상식 풍경 또한 예사롭지 않다.

수상 소감은 단 1분만 허용되는데, 그 이상 넘어갈 시 계단에 앉아 있던 스위트 푸(Sweetie Poo)란 여자 아이가 "그만해요! 지루해요!"라고 말이 끝날 때까지 소리를 지른다. 대부분의 수상자가 웃으며 연단을 내려오는데, 때로는 아이와 똑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간식을 주며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루한 건 참을 수 없다는 이그노벨상의 또 하나 독특한 문화는 참석한 관중에게 언제나 आयु할 수 있는 용도로 종이비행기를 나눠준다는 것이다. 거드름을 피우거나 무게를 잡는 수상자에게는 어김없이 종이비행기가 날아들기 때문에 시상식의 엄중한 분위기는 있을 수 없다. 그 외에도 자신의 연구와 걸맞게 코스프레를 하고 나타나는 수상자도 있다. 실제 2016년 이그노벨상 생물학상을 거머쥔 영국의 디자이너 토머스 트위치츠는 알프스에서 염소의 모습으로 염소와 생활하며 생애를 연구했던 그 복장 그대로 시상식장에 등장해 화제가 됐다.



기어코 해냈노라! 끈기와 집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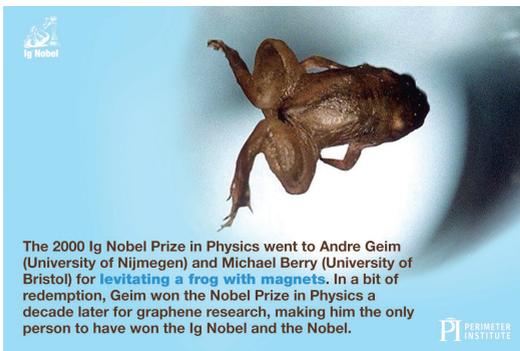
이그노벨상 이름의 유래나 포스터만 보면 이상하고 괴짜스럽게 비춰질 수 있지만 나름 수상의 기준이 명확한 편이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웃게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그 자리에서 엉뚱한 상상력을 공유하며 즐겁게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수상 기준은 이그노벨상의 궁극적인 가치와 연결돼 있는데, 바로 웃음 뒤에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물음을 던짐으로써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는 것은 물론, 엉뚱한 상상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시도와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 끈기와 집념으로 올림을 갖는다.

'관절을 꺾으면 관절염이 생긴다'는 속설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의 의사 도널드 엉거는 50여 년간 매일 왼손 손가락의 관절을 꺾어 오른손과 비교함으로써 무관하다는 걸 밝혀냈으며 알래스카 불곰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평생을 바쳐 갑옷을 개발한 사람도 있다. 무모

해 보여도 자기만의 버킷리스트를 이뤄 내기 위해 도전한 결과, 세상에 이로운 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위대한 과학적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발냄새와 치즈 냄새가 비슷한 점을 이용해 치즈로 말라리아모기를 유인하는 효과를 입증한 교수의 연구는 빌게이츠 재단의 투자를 받아 케냐와 아프리카 일부에서 말라리아모기를 잡는 장치를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2000년 자석으로 개구리를 공중부양 시키는 연구에 뛰어난 과학자 안드레 가임은 개구리가 반자성을 띠는 것을 증명하며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는 10년 후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손쉽게 추출하는 방법을 발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다. 엉뚱한 상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이그노벨상은 이 시대의 돈키호테들의 괴짜스러움을 응원하는 것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수상자들의 발상에 웃음을 터트리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연구 과정의 진심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자신의 블라인드 스팟에도 빛이 들어옴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이그노벨상의 진정한 취지인 것이다.

새로운 모험의 영감을 주는 여행가들의 문장들

필사 프로젝트 2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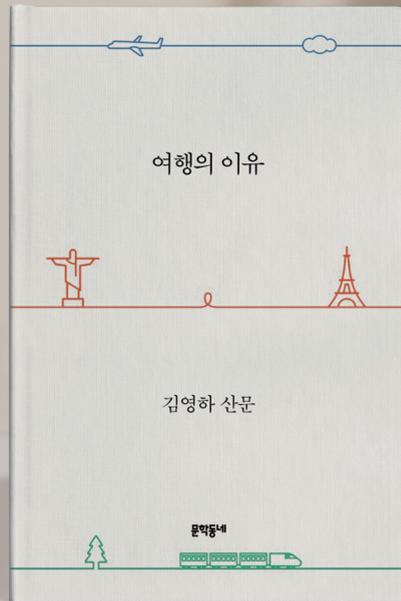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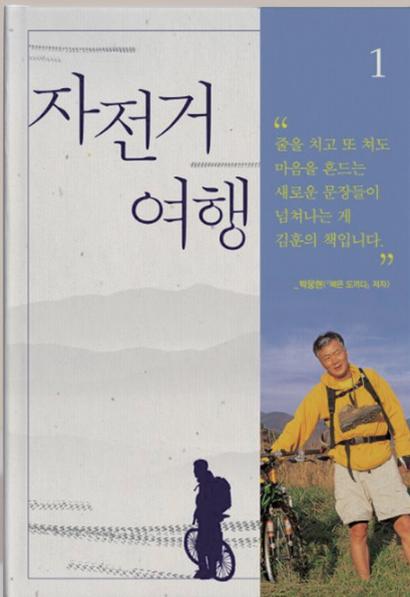
앉아서 궁리만 할 때는 몰랐지만, 과감히 길을 떠나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풍경과 마주하자 매일 보던 하늘도, 매일 내리쬐던 햇살도 기분 좋은 생경함으로 여행자들을 반긴다. 따뜻한 봄바람을 핑계로 떠나고픈 이들에게 모험의 싹이 되어줄 문장을 준비했다. 정성껏 필사를 하며 마음 속 떠날 준비를 해보자.

갈 때의 오르막이 올 때는 내리막이다.
모든 오르막과 모든 내리막은
땀 위의 길에서 정확하게 비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서로 비기며
다 가고나서 돌아보면
길은 결국 평탄하다.

<자전거 여행> 김훈 작

풀리지 않는 삶의 난제들과
맞서기도 해야겠지만,
가끔은 달아나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여행은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게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다.

<여행의 이유> 김영하 작





QR 찍고 필사 인증하기!

넥센인들의 힐링을 위해 <헬로우 넥센>이 준비한 '필사 이벤트'입니다.

손글씨로 써내려간 필사 페이지의 인증 사진을 보내주시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갈 때의 오르막이 올 때는 내리막이다.

모든 오르막과 모든 내리막은

담 위의 길에서 정확하게 비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서로 비기며

다 가고나서 돌아보면

길은 결국 평탄하다.

풀리지 않는 삶의 난제들과

맞서기도 해야겠지만,

가끔은 달아나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여행은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다.

STATION 1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소식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구에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타이어테크 회원점의
운영 노하우와 양산공장 구성원 및 가족들이 함께한 퇴근 후,
영화보기 이벤트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 계절에 딱 맞는 꽃 구독 서비스를 경험한 넥센인들의 후기와
지구를 위해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자 노력했던 모습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밀반찬과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선 훈훈한 현장도 함께 하세요.

28 Tire Tech

32 해피타임

36 라이프 구독

40 착한 챌린지

44 NEXEN CSR

오픈한 지 4개월여 만에 입소문을 타며 고객이 늘고 있는 타이어테크 회원점. 특히 고객들의 지인 소개가 이어지면서 회원점은 성장 순항 중이다. 고객 한 명, 한 명을 정직하고 성심성의껏 대하는 전희찬 점장의 자세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고객 서비스가 통했기 때문이다. '100명이 한 번 오는 매장이 아닌 한 명이 100번 오는 매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하루하루 전진하고 있는 회원점을 찾았다.

Text: 한울 Photo: 김정호

첫 인연이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타이어테크 회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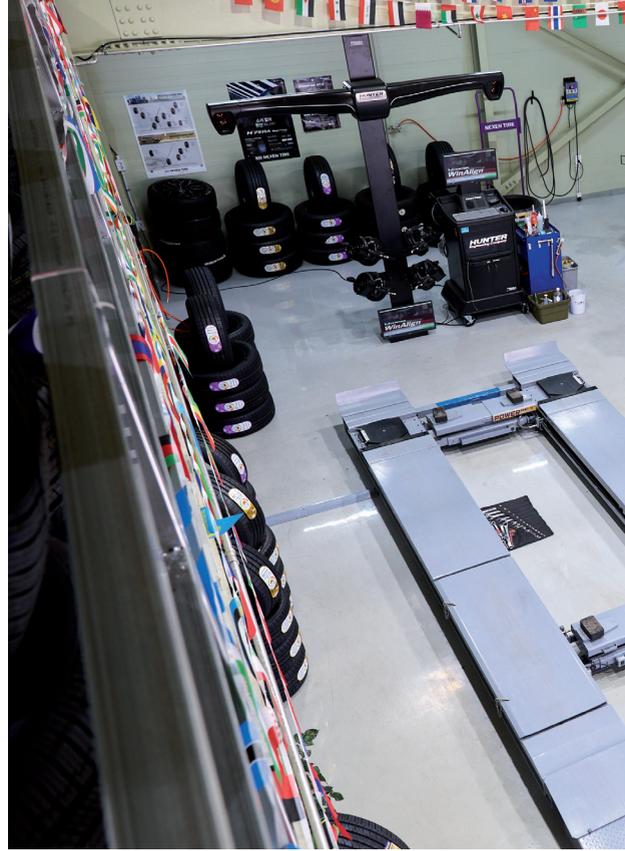
유리한 입지, 꼼꼼한 소통 전략으로 통하다!

회원점은 지난해 11월 16일에 문을 연 신생 매장이자. 약 15년 동안 타이어 업계에서 종사해 온 전희찬 점장의 야심작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 이점을 갖고 있는 회원점은 회원옥포IC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만나는 '타이어 첫 집'이다. 매장 앞 도로는 속도제한 구간이라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회원읍 중심가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회원시장은 오일장까지 열려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특히 길 건너 맞은편에는 현재 고층 아파트가 공사 중으로, 향후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도 기대된다. 넓은 공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시설도 회원점의 장점이다. 부지런하고 꼼꼼한 전희찬 점장의 성격 덕분에 매

장에는 먼지가 앉을 새가 없다.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저녁에 청소와 정리·정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퇴근한다는 전희찬 점장은 '고객들이 깨끗한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

회원점의 주 고객은 30~50대의 젊은 층이다. 전희찬 점장이 회원점을 오픈하면서 블로그 운영을 시작한 것도 연관이 있다. 블로그를 찾아본 고객들이 전화로 문의하고, 또 방문으로 이어지면서 고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블로그의 '작업 갤러리'에 들어가면 차량별로 타이어 교체 작업 과정을 꼼꼼하게 업로드해 놓아서 고객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전희찬 점장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작업에 임하는지가 전해진다. 블로그는 전희찬 점장과 고객들의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

매장 운영에서 전희찬 점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고객 니즈 충족'과 '유대관계 강화'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고객들에게 타이어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다. 타이어의 현재 상태, 타이어를 제때 교체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적절한 교체 시기 등을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고 고객이 납득했을 때 작업에 들어간다. 당연히 화원점에 대한 고객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처음에는 좀 힘들지라도, 고객들이 타이어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수록 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 한 분이 방문하셨어요. 들어보니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새로 생긴 곳이라 궁금해서 와 봤다'고 하시는데, 평소하던 대로 타이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

니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매장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매우 만족해하셨어요. 그 이후로 가족들 차랑까지 타이어를 교체하셨고, 지인 소개로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전희찬 점장은 "고객 만족은 생각하지 못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전해진다"고 강조한다. 그가 타이어 점검이나 교체 작업을 마무리한 후 차량 실내 청소, 소독, 워셔액 보충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하루 작업이 모두 끝나면 고객들에게 반드시 문자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이유다. 고객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남기는 이유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희찬 점장은 "타이어 교체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많은 고객들과 오래오래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화원점에서 알려주는 봄철 나들이 타이어 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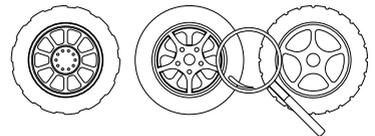


홀 깊이 2.6~2.8mm에서 타이어 교체!



나들이를 많이 떠나는 봄철에는 전체적인 기온이 상승하는 등 운행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타이어 점검에 신경 써야 해요. 만약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가 겨울용 타이어라면 일반 타이어로 교체해주고, 봄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 정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타이어 마모는 홀 깊이가 2.6~2.8mm로 여유 있을 때 교체해주는 것이 안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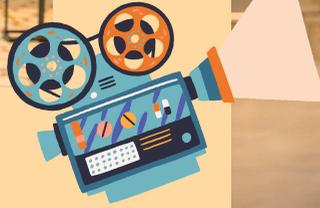
자신의 차량에 맞는 타이어 선택!



타이어는 차량의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승차감, 소음 등 생각보다 많은 부분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도 발 크기와 목적에 따라 신발을 다르게 신듯이 자동차도 출력과 주행 특성에 따라 타이어가 달라요.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크기로 타이어를 교체하고,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해 장착해야 해요. 따라서 매장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량과 주행 스타일에 맞는 타이어를 찾는 게 중요해요.

📍 타이어테크 화원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61





“파묘 보고

스트레스

날려 볼까?”

양산공장 직원들과 함께한
퇴근 후, 영화 관람 이벤트





SELF TICKETING

**<넥센 타이어>
대관 행사 부스**

상영관 : 2관 (컴포트관)
상영작 : 파묘
상영시간 : 19시 30분
19시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상영관은 7층
에스프레머티 이용해주세요!

Q&A

1. 예약번호만 있거나 모바일 티켓 결제본으로 입장 되나요?
 *미리 예약번호를 확인하시고, 모바일 결제본을 가지고, 행사 당일에도 꼭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2. 주차권은 어디서 마나요?
 *현재 건물화상대를 위해 주차요금이 없습니다. 동북문까지 무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입장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표기된 대관 시간(19시30분)에 맞춰 입장 가능합니다. (19시 25분부터 입장 가능) *입장시간이 되면, 19시 30분 이후에는 입장하지 않습니다.
4. 어떤 아이(카네이션) 입장이 되나요?
 *2관에 입장 시, 행사 당일 19시 30분(상영 시작 시간) 이전에 입장 후, 19시 30분 이후에는 입장하지 않습니다.

**<넥센 타이어>
대관 행사 부스**
상영관 : 2관 (컴포트관)
상영작 : 파묘
상영시간 : 19시 30분
19시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상영관은 7층
에스프레머티 이용해주세요!

지난 3월 8일 저녁, 메가박스 양산증산점에서 양산공장 직원들과 가족 및 친구 30여 명이 모여 영화 <파묘>를 함께 관람했다. 사보 <헬로우 넥센>은 넥센인들만의 오붓한 금요일 저녁을 선물하기 위해 리클라이너 좌석이 배치된 한 관을 통째로 대관 했다. 상영 시간에 맞춰 오려고 퇴근길을 재촉했을 직원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달콤한 팝콘과 음료, 따뜻한 핫도그까지 준비했다. 개봉 20여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 <파묘>를 보고 싶어 이벤트에 신청했다는 넥센인 가족들이 눈에 띄었다.





퇴근 후, 영화관 나들이가 더욱 특별했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사소한 추억이 모여 행복을 완성하는 것처럼, 영화가 상영되는 두 시간 남짓한 이 순간이 넥센인들의 작은 엔도르핀이 되길 기대해본다.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YP)UHP파트

이상철 사우 & 아내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 온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시간을 자주 갖지 못했네요. 평소 아내가 <파묘>를 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마침 <헬로우 넥센>에서 이벤트를 열어 참여하게 됐어요. 앞으로 아내와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YP물류운영팀

최은미 사우 &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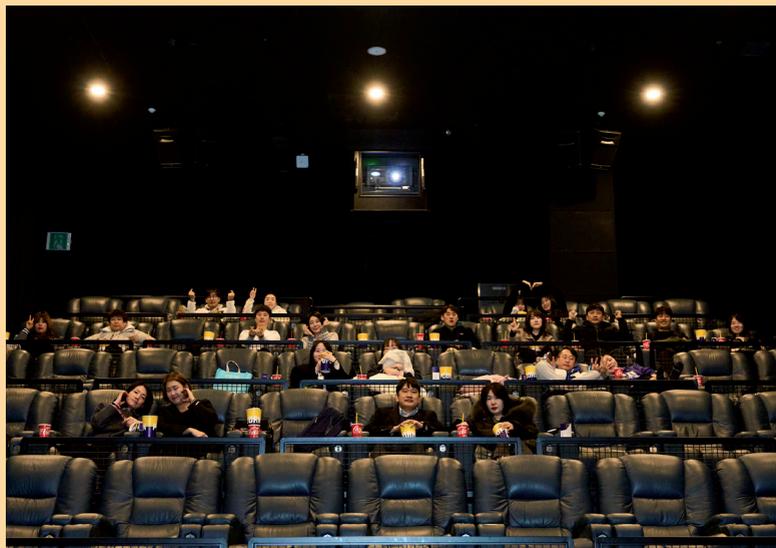
“제가 워낙 오컬트* 마니아라서 챙겨보려고 했던 영화였는데, 때마침 사보에서 이벤트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친한 친구랑 같이 보러 왔어요. 세심하게 준비해주신 간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벤트 자주 기획해주세요.”

* 오컬트: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악령, 악마 등을 소재로 다룬 장르

(YP)원자재관리계

곽정훈 사우 & 아내

“저도 와이프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라 이벤트에 신청했어요. 제가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보는 편이라 살짝 걱정은 돼요.(하하) 오락실도 있고, 인생네컷 찍는 데도 있으니까 좀 놀다 가야겠어요. 연애헬 할 때 데이트 감성이 돌아나네요.”



봄바람 타고 문 앞에 향기가 배달됐어요~

꽃 구독 서비스 체험



봄을 맞아 기분 전환 겸 집안에 꽃을 들고 싶어도, 꽃집을 직접 찾아가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또 꽃의 종류가 다양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난감하기도 하다. 소비 시간과 수고로움은 줄이고, 전문가의 큐레이션으로 퀄리티까지 높은 '꽃 구독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벚센인들의 집 앞까지 배달된 향기로운 선물의 후기를 만나보자.

**기분전환 지수 ★★★★★**

한 달에 2번 꽃 배달이 됐을 때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서비스 만족도 ★★★★★

생화이다 보니 조금 시든 꽃이 왔을 때는 아쉬웠어요.

재구매 의사 ★★★★★

'꽃 구독'이 생소했는데, 직접 집을 꾸며보니 충분히 값진 경험이었어요.

**“꽃의 화사함으로 우리 가족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새로운 공간을 하나 하나 채워가는 즐거움에 빠져 있던 차나, 꽃 구독 이벤트까지 당첨되어 화룡점정을 찍은 것 같아요. 배달된 생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환기가 됐는데, 아내와 딸이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기분까지 행복해지더라고요. 평소에 꽃을 좋아하는 딸아이와 아내에게 꽃 한 번 사주지 못했던 무심함을 반성하게 됐어요.

생화와 함께하는 피자(PIZZA).^ ^ 꽃이 배달되는 날에는 가족 저녁 식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장점이 있네요. 꽃이 주는 화사함과 향기가 집을 더욱 따뜻하고 화목하게 만드네요. 웃을 일이 많이 없는 요즘, 꽃 배달 구독 적극 추천 드립니다.



기본전환 지수 ★★★★★

꽃을 담은 우리집 3명의 공주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

조금 더 심상한 상태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제는 요긴하게 썼습니다!

재구독 의사 ★★★★★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니까 구독해보고 싶네요.

**“딸아이들 얼굴에도
꽃이 피었어요”**

조금씩 색감과 크기가 다른 꽃들을 화병에 꽂아 테이블에 놓고 다니니까 집안 가득 봄이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들이 꽃 향기도 맡고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
어요. 배송으로 오다 보니 작은 꽃들은 대가 좀 꺾여 있기도 했는데, 함께 동봉되어 있던 영양제
덕분에 1주일 넘게 심상한 꽃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인데도 가족들이 좋
아하는 모습에 저 또한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일일 플로리스트로 변신한 3살 귀염둥이”

꽃이 집 앞으로 배송이 된다니요! 구독의 세계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꽃다발을 받으니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3살 딸이랑 같이 언박싱을 하고 꽃을 다듬고 고사리손으로 직접 꽃꽂이도 했어요. 일일 플로리스트로 변신해서 핑크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을 조화롭게 꽃아봤어요. 딸도 예쁘지 계속 향기를 맡더라고요. 꽃처럼 화사하게 웃는 아이를 보며 저도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식탁에 꽃병이 있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확 살더라고요. 딸과 함께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분전환 지수 ★★★★★

향기도 너무 좋고!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서비스 만족도 ★★★★★

세심하게 꽃 영양제도 들어 있어요.

재구독 의사 ★★★★★☆

맞벌이라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적어 별 하나는 뺏지만 재구독 의사 있습니다

Station ①

착한 챌린지

지구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늘
하루는
#Car Free Day

탄소 제로를 실천하기 위해 자동차에게 휴가를 주기로 한 넥센인!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Car Free day 캠페인에 참여하면 탄소 배출량이 줄어 온실가스도 감소하고, 도로 위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연간 약 469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나무 7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조금 느리고 불편해도 대중교통과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Car Free Day에 도전한 넥센인들을 만나보자.

challenge #2

탄 소 제 로
챌 린 지



(YP)인사지원파트 김재영 파트장

아침마다 저희들의 상쾌한 출근을 책임지는 통근버스! 회사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로 붐비지 않다 보니, 통근버스를 타고 오면 출근해서도 훨씬 덜 피곤해요. 게다가 기사님들 모두 베스트 드라이버라 안전운전 하셔서 안심하고 탑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시는 기사님들! 감사드려요~



문화혁신팀 방재훈 책임

출퇴근길에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면 약 30분 정도 소요돼요.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면 15분으로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지만 대중교통을 타면 더 걸을 수 있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작지만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평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넥센인 여러분도 일주일에 1번 정도 버스나 전철을 타면서 탄소 제로에 동참해봐요~



challenge #2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이보미 책임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출시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실물카드를 사서 충전해야 하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카드 구매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교통비도 줄이고, 작은 실천을 통해서 건강한 지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후동행카드: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Infra운영팀 이선미 사원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너무 혼잡해서 힘든 날도 있지만, 사람 구경도 하고 재밌을 때도 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으면서 생활 운동이 돼서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 작은 실천이 환경 오염과 교통 체증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이동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구의 온도는 점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중형 세단 한 대가 연간 2만 5,000km를 주행하면 약 3t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 중 승용차만 2,000만 대가 넘는 상황에서 저탄소 이동에 대한 실천이 시급하다.



**1km 이동 기준
교통 수단별 탄소 배출량**



저탄소 이동 참여 방법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
(일반 속도 50~80km)
실천하기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과 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전기 수소
자동차
사용하기

**매주 목요일,
나눔으로 뭉친다!**
**6년째 달려온
기적의 밀반찬 배달**



‘선한 마음들이 모여 동화같은 일들을 이뤄낼 때가 있다. 우리는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기적’이란 단어로 같음하고는 한다. 양산공장 봉사회 ‘희망나누미’가 6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밀반찬 배달 또한 ‘나눔’에 대한 끈끈한 공감대와 사명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활동이다.

직장 생활을 하며 한 달에 한 번 봉사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양산공장 ‘희망나누미’는 어려운 이웃의 끼니를 챙겨드리는 일을 매주 목요일마다 해오고 있다. 악천후에도, 팬데믹에도 꺾이지 않은 그들의 나눔 의지는 어제보다 오늘 더 단단해지는 중이다. 현재 160여 명이 활동 중인 희망나누미 회원 중 30여 명은 출근 전 혹은 퇴근길에 직접 밀반찬 배달을 뛰고 있으며, 그 외 회원들은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

희망나누미 회장 YP품질검사팀 박경만 사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산공장 산악회를 이끌면서 ‘이 건강한 사람들과 ‘봉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을 찾아가 관장님께 “남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일! 꺼리는 일을 저희가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회사 교대 시간에 맞춰 오전, 오후 팀으로 양산시 전체를 누비며 밀반찬 배달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요. 3교대이다 보니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희의 시간에 맞춰 복지관 김정자 관장님께서 종일 교육을 해주셨어요. 코로나19가 닥쳐 양산시는 물론 전국의 봉사활동이 멈췄을 때도 복지관과 희망나누미는 한마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함께 이뤄낸 그야말로 기적이죠. 봉사 회원들의 꾸준한 활동이 존경스러울 뿐이에요.”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양산공장 봉사회
'희망나누미'

양산시장애인복지관 김정자 관장

“넥센타이어 희망나누미는 저희에게 ‘은인’ 같은 존재세요. 복지관에서는 일주일에 2번 40가구에 밀반찬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역이 워낙 넓고 가구수도 많다 보니 직원 1명이 아침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하루 종일 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희망나누미가 그 고된 일을 함께 해주신 거죠. 현재는 좀 더 먼 거리를 배달하면서 20가구로 조정됐어요. 희망나누미가 밀반찬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방문을 통해 매주 이웃들의 안부도 확인해 주세요. 비대면이기 전에는 집안에 고쳐야 할 것,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서 복지관에 알려주셨죠. 한번은 희망나누미가 쓰러져 계신 수혜자를 발견하셔서 고비를 넘긴 적도 있어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는 이분들이야말로 이웃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희망나누미는 밀반찬 배달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모금한 후원금과 사내 서클비를 모아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 여름 나기 물품 지원, 재가 장애인을 위한 희망 꾸러미, 캠핑카 지원, 명절 선물 세트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저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더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이제 양산시에서는 '보라색 조끼'만 봐도 넥센타이어라고 알아볼 만큼 희망나누미가 유명 인사가 됐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건강하고 착한 기업이란 브랜드 마케팅을 희망나누미가 하고 있는 것이다.

봄 기운 완연한 3월의 어느 날도 어김없이 반찬통을 들고 길을 나선 희망나누미! 밀반찬 배달 이용자들은 “각자 자기 일이 있는데도 이렇게 시간내서 이웃을 위해 반찬을 배달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독거 노인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라며 연신 눈시울을 붉혔다. 어르신과 봉사자는 조용히 손을 맞잡으며 마음을 나눴다. 이웃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희망나누미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갈 그 다음 행보가 궁금해진다.



THANKS TO
 불철주야 나눔을 실천하는
 운영진들의 이름을 만나보세요.

밀반찬 배달 5년 개근 봉사자 최귀영 사주

“5년 동안 한수도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대단하다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제 인생에 더 없는 행복입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아빠, 봉사하러 안 가?”라며 저를 봉사하는 사람으로 알려더라고요.(하하) 이 일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알게 되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돼서 좋습니다.”





마음으로 나른 10,000장의 온기

양산공장

연탄 배달 봉사



넥센타이어 양산공장 임직원들이 지난 2월 6일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10,000장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보통 연탄 배달 봉사는 연말에 이뤄지다 보니 이듬해 2월이 되면 연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넥센타이어는 꽃샘추위가 왔을 때까지도 이웃 주민들이 넉넉하게 연탄을 댈 수 있길 바라는 세심한 마음으로, 늦겨울에 연탄 배달을 기획했다.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을 통해 후원한 연탄을 임직원들이 부산 좌천동 일대의 여러 가구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

오후 2시, 연탄 나눔 봉사에 지원한 임직원들이 좌천동 수남문화센터 앞에 모였다. 연일 추웠던 날씨로 인해 걱정했지만, 당일에는 기온이 올라 수월하게 연탄 배달 봉사를 할 수 있었다. 연탄 배달이 시작되자, 임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지게를 등에 메고 움직였다. 쉬지 않고 나른 덕분에 약 15가구의 연탄 전달이 예상보다 빨리 완료됐다. 넥센타이어 임직원들이 행한 연탄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



STATION 2

나들이 떠나기 좋은 요즘, 건강을 위해 러닝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초보 러너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부터 러닝메이트가 되어 줄 앱 소개까지 마련했구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 이상 기후로 생겨난 신조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의 새로운 진화를 엿볼 수 있었던 CES 2024에 대한 소식과 <헬로우 넥센>의 지원으로 주말에 이색적인 문화를 체험한 넥센인들의 후기도 담아봤습니다. 또한 넥센타이어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시무식 현장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사내 원데이 클래스까지! 다양한 회사 소식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50 당신의 알고리즘

54 그린인포

58 컬처 티켓팅

64 알쓸IT잡

68 ISSUE

78 NEWS

넵다 뛰면 안돼! '초보 러너'의 알고리즘

날씨가 풀리면서 여기저기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눈에 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크루와 함께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 초보 러너라고 무턱대고 달리기보다 기본적인 아이템 착용부터 러닝의 동기부여가 되는 책, 코스 선택의 조건 등을 다양하게 만나보자.

RUNNER

Item

초보 러너의 날개가 되어줄 장비빨



쿠션감이랑 발볼 체크 '러닝화'

기안84의 마라톤 도전기에 등장한 '런너스 클럽'은 뭘 때의 발목 각도와 하체 근력, 발 사이즈 등을 정확히 분석해서 최적의 러닝화를 찾아주는 곳이였다. 달리기에서 신발이 그만큼 중요한 것! 달릴 때 발에 실리는 체중의 무게는 3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초보자의 러닝화는 경량성 만큼이나 쿠셔닝이 중요하다. 아직 단련이 안된 초보 러너의 경우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신발 중앙부에 쿠셔닝이 된 미드풋 전용 러닝화를 추천한다. 발볼이 좁다면 나이키를, 좀 더 다양한 발볼 사이즈를 원한다면 뉴발란스가 적당하다. 하지만 브랜드별로 착화감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어보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러닝화는 길들기까지 짧은 거리를 달리고, 800km 정도 달렸다면 교체하기!"

#미드풋 전용 #10만원대 #800km리대 교체

암배드 대신 짱짱한 '러닝벨트'

러닝의 고됨을 잊게 해줄 음악도 들어야 하고 달리기 기록도 체크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수지만 달리다 보면 여간 걸리적거리는 게 아니다. 이때 팔에 차는 암배드에 스마트폰을 넣어 사용하게 되는데, 뭘 때 몸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기도 하고 흘러내려 신경 쓰일 수도 있다. 반면 러닝벨트는 허리에 차기 때문에 양쪽 균형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작은 생수나 파워젤*을 담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달리다 보면 러닝벨트 하나도 덩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볍적 얇고 신축성이 좋은 타입을 선택하자!



*파워젤이 뭐지?

러닝 중 에너지 충전을 위한 젤리형 보충제. 약 9~10km당 1개씩 먹기 때문에 하프 마라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경기 나가기 전 연습 때 입맛에 맞는 것을 찾기 위해 미리 먹어보는 것도 좋다



본격적으로 달려? '러닝 스마트워치'

열심히 달리다 보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내가 얼마나 땀 거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속도는 적당한가?', '지난주보다 오늘 더 잘 달린 것 같은데 모르겠네...' 의문이 들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러닝을 즐기고 싶어 진다. 이때 정확하고 꾸준하게 운동 페이스를 체크해줄 스마트워치가 필수다. 거리, 페이스, 시간 이외에도 심박수, 랩 타임, 평균 페이스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는 20~100만 원 정도로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초보 러너는 20만 원대의 가성비 좋은 '가민 포러너 55'를 추천한다. 한 번 충전에 일주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시계 화면은 3분할, 4분할이 있는데 '거리, 경과시간, 랩 페이스, 평균 페이스'가 나오는 4분할이 효과적이다.



다 같은 양말이 아니야! '러닝삭스'

일반 양말을 신고 달리다가 물집으로 꽤나 고생할 수 있다. 러닝삭스는 쿠션이 있어 달릴 때 편안할 뿐만 아니라 발과 신발의 마찰을 줄여줘 상처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땀 흡수가 빠르고 잘 말라 쾌적함을 유지하며, 발을 압박하기 때문에 붓기를 방지하기도 한다. 양말의 길이도 중요한테, 발목 이상으로 올라와야 러닝에 효과를 줄 수 있다. 축구 선수들의 양말이 무릎까지 오는 건 종아리 자세를 바로잡고, 근육이 뭉치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이다.

#20만원대 가성비 #4분할이 코를

SNS

팔로우하고 정보 공유
'러닝 마라톤 채널'



@runners_now

마라톤 대회 정보와 동호회, 모임, 러닝 관련 정보와 제품 소개 등 다양한 정보가 업로드 되어 있다.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는 초보자에게 함께 댄 러닝메이트를 찾기도 좋은 채널

@runninglife_korea

국내부터 해외까지 최고의 러닝코스는 물론 러닝 대회 일정, 러닝화 순위, 유명 마라토너의 훈련법, 러너가 먹으면 안되는 음식 등 달리기와 관련한 재미있고 다양한 정보가 가득한 채널

App

365일 나만의 코치로
활약 중 '러닝 앱'



나이키 런클럽

단계별 달리기로 체계적이고
목표 달성마다 배지까지!



스트라바

러닝뿐만 아니라 사이클, 수영도
기록 가능! 직관적인 결과 그래프 G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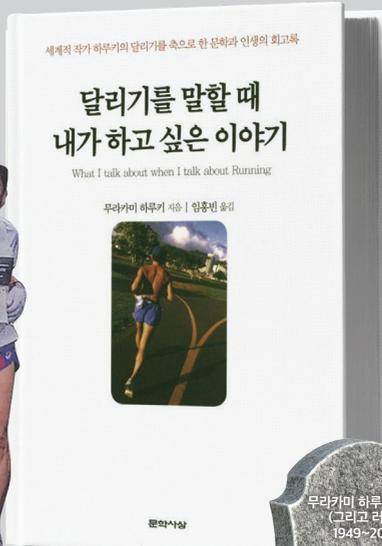
런데이

건고 뛰고를 반복하는 인터벌 트레이닝 위주.
자세와 호흡법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



Book

책장을 넘길 때마다 달리고 싶어 진다!



하루키가 꿈꾸는 묘비명



작가 하루키를 키운 것은 '마라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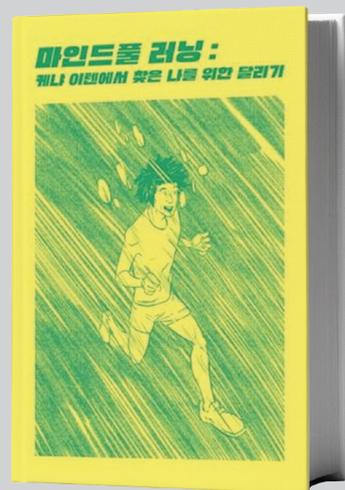
1979년 등단 후 나이와 국적 불문,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 11권, 단편 소설집 15권을 비롯해 90여 종의 다작을 꾸준히 발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달리기'였다. 이 책은 '달리는 소설가'라고 불리는 하루키가 인생과 문학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을 러닝을 통해 펼쳐내고 있다. 26년에 걸쳐 세계 각지를 돌며 마라톤에 도전하고 있는 하루키의 가방 안에는 언제나 러닝 슈즈가 들어 있다. 스스로를 '튼튼한 러너'라고 이야기하는 하루키의 인생 회고록을 보며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명료한 답을 찾아보자.

"나이가 들고 신체의 한계가 생기고 뛰어난 기록을 얻지 못해도 그것이 인생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하루키는 효율성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닌란 것을 알게 됐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땀박질을 찾아라!

뜻하지 않은 삶의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연히 접한 달리기로 인생의 좌표를 찾게 된 청년! 잘 달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세계적인 달리기 선수와 코치를 배출한 '케냐'로 떠났다. 기대와 달리 케냐에서는 '빠르게 달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잘 달리는 방법을 발견했다. 케냐의 마라토너들은 그저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며, 현재의 빠름을 위해 장기적인 성장을 희생하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았기에 빠를 수 있었던 것! 이 책은 제목 처럼 달리는 횟수, 시간과 같은 기록에 연연하는 것보다 자신의 호흡과 속도에 맞추어 나만의 달리기를 찾으라고 얘기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케냐 마라토너들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달린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빠른 그들의 속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달리기'를 해낸 결과다."



RU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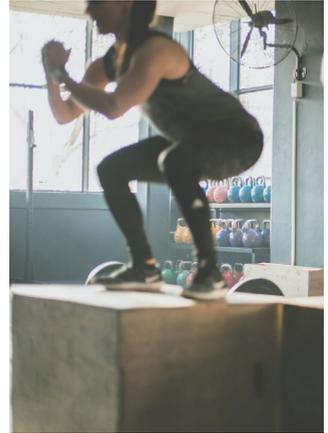
초보 러너를 위한 달리기 알쓸런잡



처음이라면,
러닝 거리는
3km 부터



평탄한
공원 코스부터
정복하기



러닝 후,
무릎과 허리가 아프면
'근육 운동'



걷기와 조깅을 번갈아 가며 근육이나 관절을 강화하고, 차차 조깅의 비중을 늘리도록 한다. 3km를 20분 정도 소요하는 방식으로 느린 달리기를 연습하도록 한다. 이것이 가능해졌다면 그때부터 아주 천천히 1km씩 거리를 늘려 나가도록 한다. 하지만 처음 달려본 사람은 3분을 쉬지 않고 달리는 것도 힘들게 느껴질 것이다. 일정 시간 동안 느린 속도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포인트!



초보 러너라면 오르막이 적고 평지가 많은 곳이 좋다. 오르막을 20초만 달려도 심박수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어려워지고 그만 멈추고 만다. 처음하는 달리의 포인트는 멈추지 않고 꾸준히 20분 정도 달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횡단보도가 적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원만한 곳이 없다. 같은 길을 여러 번 돌아야 하는 점이 있지만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평탄한 코스를 유지해보자.



러닝 시 발생하는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스쿼트와 런지 등으로 웨이트를 병행하면, 달린 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단 근육 운동을 한 날에는 달리를 15분 정도로 짧고 가볍게 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러닝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어깨나 팔, 복부 등 상체가 당긴다면 과도하게 팔을 흔드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 있다. 이때는 러닝 자세를 점검해 보자.

극단적 이상 기후 속에서 탄생한 위기의 신조어

온난화로 지구 에너지 순환 시스템이 교란되면서 극단적인 산불, 홍수, 폭염, 폭풍 등을 예측할 수 없게 되자 '도깨비 날씨'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1천년 만에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의 이상 기후 소식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지금! 그 현상에 대한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상 날씨로 터전이 사라진 기후 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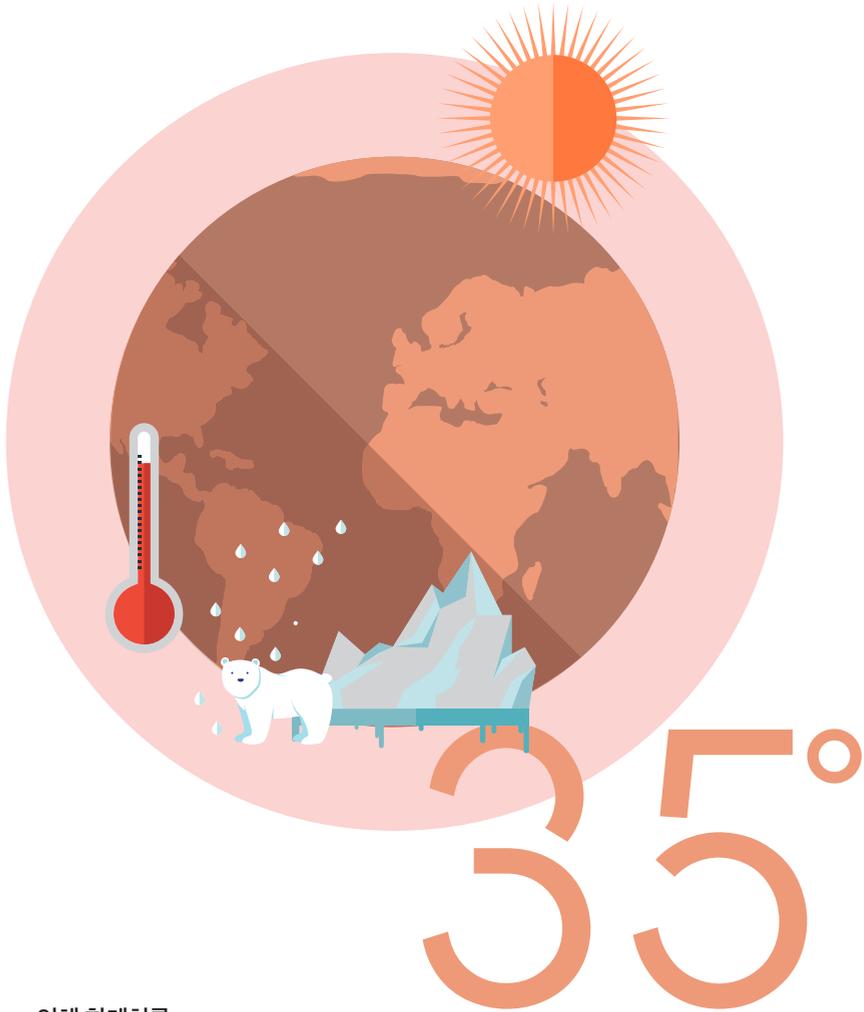
지구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자 해안가 저지대에 살던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 그들뿐만 아니라 대홍수, 가뭄, 산불 등의 기후 변화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일컬어 '기후 난민'이라고 부른다.

2020년 11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 폭우와 산사태로 집과 생계를 잃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그리고 미국으로 가 난민 신세가 됐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 북아프리카 지역은 심각한 가뭄으로 약 220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영국과 중국 대학교가 참여한 국제 연구는 지구 평균온도가 0.1℃ 상승할 때마다 1억 4,000만 명이 극한 기후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국제 NGO 자국내난민감시센터(IDMC)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약 3,260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신규 난민의 53% 가량을 차지하는 수치다. 전쟁 난민보다 기후 난민이 더 많은 상황이다.



3,260
만 명



인체 한계치를 뛰어넘는 습구온도

수은주 끝을 공기가 통하는 젖은 천으로 감싸 측정한 온도를 '습구온도'라고 한다. 인체의 경우 열이 오르면 땀을 배출해 증발시킴으로써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본떠 만든 것이 습구온도계이다. 그런데 외부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습구온도는 35도(습도 50%, 섭씨 45도)인데, 이 온도에 이르면 대기의 습도가 높아 땀의 증발이 느려 지다가 멈추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습구온도 35도에서 인간은 6시간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 장시가 노출되면 열탈진, 열사병, 심혈관질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 위험도는 2003년 유럽의 역대급 폭염으로 7만여 명이 숨졌을 때 습구온도가 28도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거대한 산불 회오리

파이어네이도 Firenados

산불로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하면서 바람에 의해 회오리처럼 뒤틀리는 현상을 파이어네이도라고 한다. 불(fire)과 토네이도(tornado)의 합성어로, 2003년 호주 캔버라의 산불에서 처음 목격됐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폭염이 화재 규모를 키우며 2010년 이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평균 시속 100km인 파이어네이도는 2018년 캘리포니아에서 시속 230km까지 빨라졌으며, 당시 연기가 고도 7.5km 상공까지 치솟았다. 한 번 회오리가 시작되면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화재가 더욱 커지는 문제가 있다. 2020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파이어네이도에 의해 12t 소방차가 전복돼 인명 피해가 생기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줄고 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건조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파이어네이도의 발생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화재가 만든 대형 뭉게구름

플라마제니투스 flammagenitus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하늘 높이 솟아 오르며 만들어지는 구름을 화재적은 혹은 플라마제니투스라고 부른다. 산불로 주변 공기가 섭씨 800도 이상 오르면, 뜨거운 지표로 인해 주변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성되는데, 이때 구름 색은 회색이나 갈색, 검은색을 띤다. 과거 산불이 났을 때 플라마제니투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그 등장 횟수가 급증하면서 세계기상기구는 30년만에 구름 도감에 플라마제니투스를 새로운 구름으로 추가했다. 구름이기 때문에 소나기를 내릴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화재적은 짙은 연기와 뜨거운 열기로 강수를 오히려 억제해 화재를 키우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2021년 미국의 오리건 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높이만 10km에 달하는 거대한 플라마제니투스가 4일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맑은 공기를 끊임없이 상승하게 만들어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차단하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을 준다.

해양 쓰레기와 온난화로 흘러는 바다콧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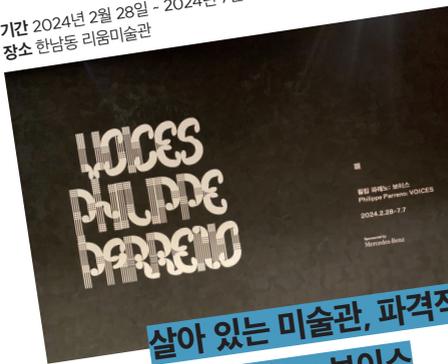
강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와 폐수,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증가하면 식물플랑크톤이 지나치게 번식하게 된다. 이때 식물플랑크톤이 배출하는 끈끈한 점액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바다콧물'이다. 발로 밟아도 잘 흩어지지 않을 만큼 바다콧물은 두껍게 층을 이루고 있고, 수초에도 단단히 붙어 있어 제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엉키게 하거나 배의 모터를 망가뜨려 어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 또한 200km까지 바다에 퍼질 수 있는 바다콧물이 그대로 해수면을 뒤덮을 경우 햇빛과 산소가 차단돼 해양생물의 질식사(窒息)를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점액의 젤라틴성 물질이 해양생물의 사체를 감싸고 운반하기 때문에 악취는 물론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문화적 영감이 솟아오른다! 예술이 있는 넥센인의 심

넥센인들의 잠재되어 있는 아티스트 감성을 깨우고 일상에 활기를 주기 위해, 사보 <헬로우 넥센>은 문화비를 지원하는 코너를 마련해오고 있다. 참여자들의 조금은 특별했던 주말을 따라가보자.

기간 2024년 2월 28일 - 2024년 7월 7일
장소 한남동 리움미술관



살아 있는 미술관, 파격적인 실험실!
필립 파레노 : 보이스



가이드 패턴디자인연구팀 김진혁 선임연구원

사보에서 기획한 '컬처 티켓팅'이라는 좋은 기회로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하러 한남동의 리움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전시 중인 <필립 파레노: 보이스>는 올해 7월 7일까지 진행해요. 인기가 많은 전시라 사전에 온라인 예매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관찰자 시점이 아닌 관찰자를 대상으로 바라보는 어항 속의 물고기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언어와 음악이 공간을 꽉 채우는 전시였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설치미술의 대가, 필립 파레노의 전시만큼 마법같은 세계를 보여주려 한 그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열심히 봤습니다. 데이트하기 좋은 한남동에 위치해 있어 주말 나들이 겸 전시까지 함께 즐길 수 있었어요.



감상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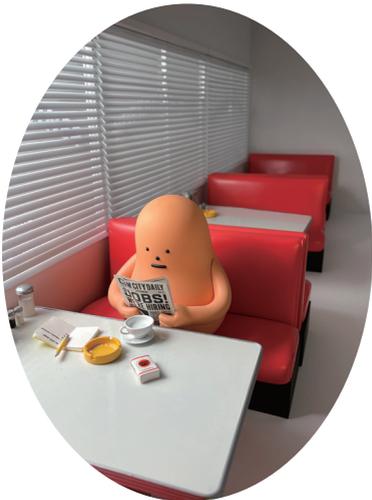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술가가 공간을 가득 채운 소리와 오브제를 오감으로 느끼며 자유롭게 해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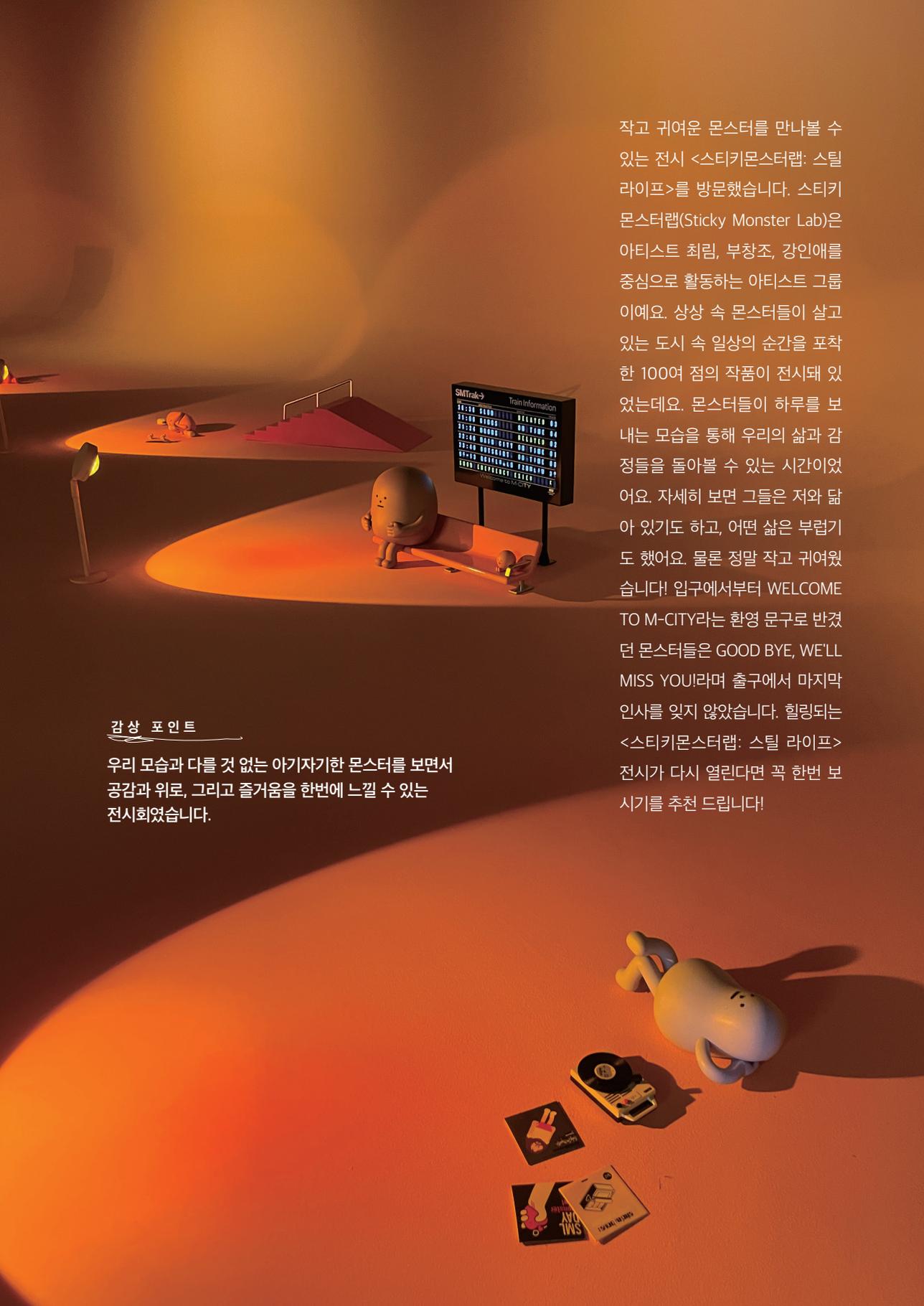
가이드 CP 공무팀 원동파트 이광일 사원

다른 듯 닮은 우리와 몬스터들
스티키몬스터랩: 스틸 라이프



기간 전시 종료
장소 그라운드시소 성수





감상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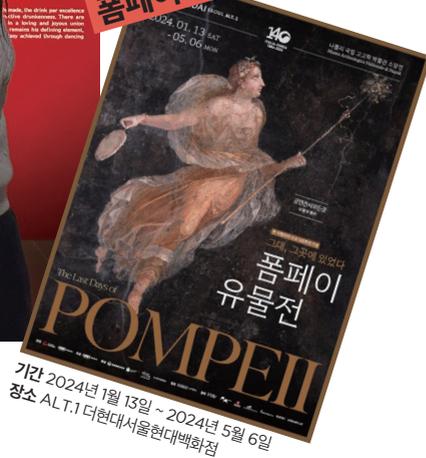
우리 모습과 다를 것 없는 아기자기한 몬스터를 보면서 공감과 위로, 그리고 즐거움을 한번에 느낄 수 있는 전시회였습니다.

작고 귀여운 몬스터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 <스티키몬스터랩: 스틸 라이프>를 방문했습니다. 스티키 몬스터랩(Sticky Monster Lab)은 아티스트 최림, 부창조, 강인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그룹이에요. 상상 속 몬스터들이 살고 있는 도시 속 일상의 순간을 포착한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몬스터들이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감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그들은 저와 닮아 있기도 하고, 어떤 삶은 부럽기도 했어요. 물론 정말 작고 귀여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WELCOME TO M-CITY라는 환영 문구로 반겼던 몬스터들은 GOOD BYE, WE'LL MISS YOU!라며 출구에서 마지막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힐링되는 <스티키몬스터랩: 스틸 라이프> 전시가 다시 열린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가이드 한국OE PM팀 이수민 사원

최후의 날로 타임머신을 타고!
 폼페이 유물전 - 그대, 그곳에 있었다



<폼페이 유물전 - 그대 그곳에 있었다>가 오픈되기 전부터, SNS를 통해 해당 전시회에 대해 접했던 터라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다만 티켓 가격이 비싸 방문을 망설였는데요. 사보 문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를 정말 좋아했던 터라 로마 신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전시회가 두 배는 더 재미있었습니다. 폼페이 사람들의 와인 사랑을 다양한 유물을 통해 느낄 수 있었고, 유물 곳곳에 표현되어 있는 신들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베수비오 화산 분화 시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AD 79년 예상), 제 예상보다 훨씬 오래된 일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장신구부터 화장품, 향유 그리고 술문화까지 다양한 방면의 문화가 번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시회를 가지 않았더라면, 평소처럼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쉬었을 텐데, 오랜만에 재미있는 전시회를 관람한 덕분에 걷고, 먹고,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감상 포인트

2천년 간 놀랍도록 완벽히 보존된
고대도시를 보며 오늘날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CES 2024 속,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미래 세계가 궁금해졌어!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 기술 전시회 CES 2024는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4천여 개의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All Together, All On(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의 활성화)'이라는 올해 슬로건답게 그야말로 인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미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말하는 비데에 우울함을 캐치하는 거울까지! 기발함을 넘어 미래의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킨 신박한 아이디어들을 만나보자.

미래 항공기 S-A2



주행과 용도의 한계를 벗어 던진, 미래의 모빌리티

전시회장 안에 등장한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항공기 S-A2의 실물 영접에 여기저기서 스포트라이트와 함성이 터졌다. 현대차그룹이 처음 공개한 미래 항공기 S-A2는 길이 10m, 폭 15m로 단일 전시물 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수직·수평 방향으로 꺾이는 로터(rotor·회전날개) 8개로 제자리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2028년 실제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S-A2에 이어 기아에서는 ‘영감을 주는 공간’이란 주제로 ‘목적기반모빌리티 5종’을 선보여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배달 화물차, 캠핑카, 장애인용 택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을 보여줬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4개의 바퀴를 모두 개별 제어하는 e코너시스템을 장착한 실증차 ‘모비온’을 최초로 공개했는데, 차량은 대각선으로 주행하고, 제자리에서 회전했으며 평행 주행까지 구현했다. 게처럼 옆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일명 크랩주행이라 불렀다. 한편 HL만도는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을 탑재한 주차로봇 ‘파키’를 통해 최고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높이 9cm에 불과한 로봇 2대는 장애물, 주행로, 번호판 인식은 물론 차량의 크기와 무게, 형태 등을 감지하고 판단해 전시장에서 직접 주차를 성공해냈다.



e코너시스템을 장착한 실증차 ‘모비온’



이제는 비데와도 대화가 가능하다?

미국 욕실 용품 회사 콜러의 ‘퓨어위시 E930’ 비데 시트는 시를 탑재하고 있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커버를 열고 닫는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알렉사 및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동해 음성으로 온풍, 건조 및 UV소독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비데에 대고 분사 및 셀프 클리닝을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콜러의 대표는 “화장실의 어떤 것도 만질 필요 없는 ‘핸즈프리’를 실현했다”고 자부했다. 현재 콜러 웹사이트에서 1백 69만 원에 선주문이 가능하다.



소리를 흡수하는 마스크가 있다?

프랑스 스타트업 스카이트이드가 개발한 '모빌리티 프라이버시 마스크'는 음성 진동을 흡수하고 보장한다. 프랑스 항공우주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트엔진용 소음차단 소재가 들어가 말하는 소리를 가두도록 설계돼서 전철이나 기차, 택시 등 공유 공간에서 큰 소리로 통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 내용의 프라이버시도 보장된다. 사람의 목소리를 80%까지 줄여주며, 외부 소음도 차단된다. 내부에 있는 마이크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소음이 많은 곳에서도 깨끗한 품질로 통화가 가능하며,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앱을 사용해 '투명 모드'를 설정하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다.

거울아~ 스마트 거울아~ 나 지금 우울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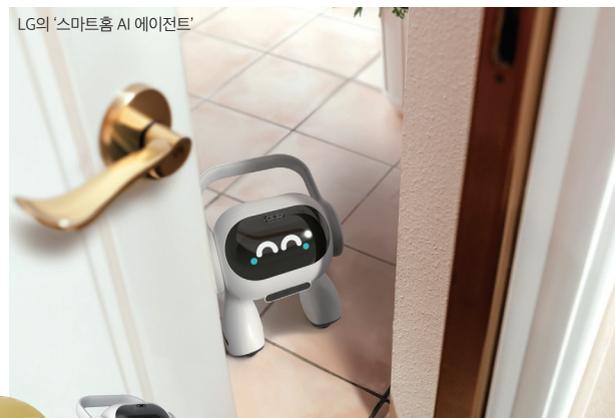
프랑스 디지털 헬스기업 바라코다는 세계 최초의 AI 기반 스마트 거울 'BMind'를 선보였다. 예상치 못한 디바이스에 적용된 AI 덕분에 거울은 정신 건강을 체크해주는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게 됐다. 스마트 거울 BMind는 생성형 AI와 자연어 처리기술이 적용돼 사용자와 소통이 가능하며,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면서 피부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적합한 화장품과 케어 상품을 추천해준다. 거울은 사용자의 몸짓이나 표정, 말투를 바탕으로 기분을 파악하여 지금의 심리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명상과 조업을 대화로 이어간다. 피곤하다고 하면 그에 맞는 음악과 영상을 틀어주며 사용자의 멘탈 케어가 가능하다.



이 정도면 베테랑 집사! 반려로봇 총집합

이번 CES에서 눈에 띈 생활 속 반려로봇은 인공지능으로 한층 더 진화한 형태를 보여줬다. 삼성전자의 '볼리'는 사용자의 말과 행동의 패턴을 학습해 스스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으로 음성 명령을 내리면 바로 수행할 정도로 정확하다. 사용자를 따라다니며 전화를 받기도 하고 반려동물의 사료를 챙기거나 어린 아이와 고령의 가족을 모니터링하며 돌본다. 사용자가 외출 중에 가족에게 이상이 생기면 상황을 알려주고, 집안의 IoT 기기 등을 컨트롤한다. 또한, 원·근접 투사가 가능한 프로젝터가 내장돼 있어 바닥이나 벽, 천장에 영화와 영상통화를 최적의 화면으로 보여준다.

볼리가 가정의 집사 역할을 했다면, LG의 2족 보형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는 가사 생활의 도우미로 활약한다. AI 로봇은 자율 주행 기술을 통해 바퀴가 달린 두 다리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카메라와 스피커, 센서 등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활동 반경이 넓은 만큼 사용자는 외부에서도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조작해 집 안을 소동하거나 반려동물의 상태를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은 음성·음향·이미지 인식 등이 가능한 멀티모달 센싱과 첨단 AI 프로세스를 토대로 사용자의 상황과 상태를 정교하게 인지하고 소통한다는 것이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면 '병원에 가보기'를 조언하기도 하고, 표정에 따라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재생하고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용자가 집에 오면 문 앞에서 반려동물처럼 맞이해주는 모습은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All Together,

All On

ISSUE

LEAP+

도약, 그 이상.
실행과 도전이 내일의 가치를 만듭니다





‘LEAP PLUS’ 2024년 시무식 개최

지난 1월 2일 넥센중앙연구소인 ‘더넥센 유니버시티’에서 2024년 시무식이 열렸다. 강호찬 부회장은 임직원에게 지난 한 해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올해는 유렵공장 2차 증설 가동에 따라 더 높게 도약해야 할 시기이자, 지금까지 일궈 놓은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때”라고 전했다.

이에, ‘립 플러스(LEAP PLUS)’를 2024년 키워드로 정하고, “도약은 단순히 높게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 그 이상의 실행과 도전이 수반되어 더 많은 고객에게 프리미엄 제품 경험을 제공하자는 우리 스스로의 ‘브랜드 밸류 업 (VALUE UP)’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함께 모인 임직원들은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누며 시무식을 마쳤다. 2024년 넥센 임직원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바란다.

Text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Photo 임동욱



LEAP+

도약, 그 이상.
실행과 도전이 내일의 가치를 만듭니다



땀의 성장과 과감한 도전 제2회 퍼플어워즈 시상식

지난 1월 2일 열린 시무식 행사 후에 '제2회 퍼플어워즈' 시상식이 있었다. 2회를 맞이한 퍼플어워즈는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가 수행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여 '도전, 창의, 협력'이라는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번 퍼플어워즈 역시 첫 회와 마찬가지로 열린 관심 속에 부문별로 많은 신청서들이 접수되었다. 한 해 동안 프로젝트 성공사례를 시상하는 'Go, Best'와 아쉽게 실패했지만 과감한 도전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담아 시상하는 'Try Again',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 서류 평가가 이루어졌다.

LEAP+

도약, 그 이상.
실행과 도전이 내일의 가치를 만듭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BG별 다양한 직급들로 구성된 직원평가단 임직원들은 1~2차에 걸쳐 심사에 참여했다. 특히, 2차 심사 때는 직원평가단 전원이 덕백센우니버시티로 모여 치열한 토론 공방을 벌였다.

수준 높은 심사 속에 이번 퍼플어워즈는 Go, Best와 Try Again 부문 모두 선행기술팀에서 영예의 1위 수상을 안았다. 비록 수상하지 못했지만, 접수된 모든 신청서의 내용에는 각자 위치에서 한 해 동안 열정을 다해 업무에 임한 임직원들의 피와 맘을 느낄 수 있었다. 해가 갈수록 심사의 기준도 높아지고 프로젝트의 성과 및 과정 또한 양질의 퀄리티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퍼플어워즈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된다.

Text 문화혁신팀 유재훈 책임 Photo 임동욱





사내 원데이 클래스 가족 여권 케이스 만들기

넥센인들에게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색적인 취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센트리 클래스가 직원들의 높은 참여에 힘입어 올해도 문을 열었다. 지난 3월 6일,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진행된 2024년 첫 클래스는 '가족 여권 케이스 만들기'. 처음 도전해 보는 가족 공예에 대한 기대감과 직접 만든 여권 케이스를 들고 여행을 떠날 상상을 하니 참여자들의 얼굴은 벌써부터 설렘으로 가득하다.

퇴근 후, 모이기 시작한 25명의 참여자는 가족의 색깔을 그리는 첫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바느질 때문에 고군분투하던 참여자들도 느리지만 꼼꼼하게 구멍을 메워 나갔다. 두 시간을 꽉 채울 정도로 끝까지 정성을 다한 참여자들은 꽤 완성도 높은 각자의 케이스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Mini interview



유럽OE PM팀 안민성 선임

원데이 클래스에 관심이 있었지만 참여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완전히 생소한 분야인데 집중하다 보니 색다른 즐거움이 있네요. 생각보다 잘해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센트리 클래스 덕분에 제 숨은 재능을 발견했어요.



품질경영팀 권현직 책임

체험 형태로 도자기는 한 번 배워 봤는데, 가죽 공예는 처음이에요. 이 정도 솜씨면 가죽 공예 길로 나가서 먹고 살아도 되겠다 싶네요. (하하) 기술적인 바느질이 재밌더라고요. 강사님 말씀대로 명품 버금가게 만들었습니다!



인사팀 전재갑 수석

와이프에게 선물하려고 클래스를 신청했어요. 예쁜 분홍색 가죽을 고르긴 했는데 워낙 제가 곰손이라 좀 걱정이네요. 하지만 아내를 위한 거니까 직접 만들어야 하잖아요. 선물을 받고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기대가 되네요.



‘넥센 원가드 스노보드팀’ 선수단과 스노보드 아카데미 성료

넥센타이어가 ‘넥센 원가드 스노보드팀’ 선수단과 함께하는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아카데미는 2월 5일 강원도 ‘모나 용평’에서 ‘넥센 원가드 스노보드팀’ 선수단과 유·청소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넥센 원가드 스노보드팀'의 이상호, 홍승영, 권용희 선수 및 현병준 코치가 일일 강사로 나서, 스노보드 게이트 트레이닝, 원포인트 레슨 등을 진행했다. 또한 후드티, 예코백, 넥워머 등 기념품도 증정하며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넥센타이어는 "스노보드 꿈나무들이 '넥센 원가드 스노보드팀' 선수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청소년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ext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Photo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박남도 선임



Q4





제66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지난해 매출 2조 7,017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

넥센타이어는 3월 26일 오전 11시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제6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액면가 500원 기준 1주당 보통주 115원, 우선주 120원을 결의하며 25년 연속 현금배당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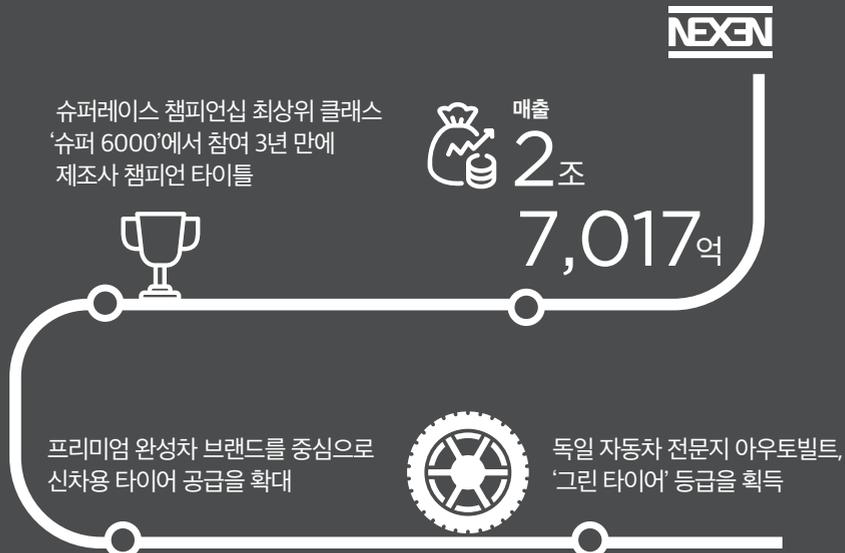
넥센타이어는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2조 7,017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거두었고, 영업이익은 1,870억 원을 기록했다. 넥센타이어는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하고, EPL 맨체스터시티 스폰서십 지속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다.

여기에,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티프트에서 '그린 타이어' 등급을 획득하고,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상위 클래스인 '슈퍼 6000'에서 참여 3년 만에 제조사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는 등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넥센타이어 이현중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유럽 공장 2단계 증설 완료에 이어 추가 생산 기지 건립 구체화 등을 통해 생산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R&D 경쟁력 또한 강화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고객과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밸류업의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밝혔다.

Text 대외협력팀 이재엽 팀장 Photo (YP)노사협력파트 핑치훈 책임

2023년 넥센타이어 주요 성과



NEWS

신규 광고 '넥스트 에볼루션' 론칭 차별화된 전기차 타이어 기술력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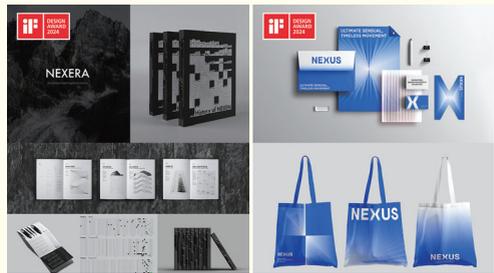


넥센타이어는 3월 8일, 신규 TV 광고 '넥스트 에볼루션(Next Evolution)'을 론칭하며 EV 기술 혁신을 통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알렸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넥스트 세이프티' 광고를 선보이며 지속가능한 안전을 나타낸 데 이어 이번에는 '넥스트 에볼루션'을 공개하며 전기차 시대에 진화된 타이어를 소개한다. 먼저, AI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된 저속용 패턴 설계로 조용하고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전기차 전용 4D 내구성 컴파운드 적용으로 그림력은 물론 전비(전기차 연비) 및 향상된 마일리지 성능을 자랑하는 넥센타이어의 기술력을 어필한다.

여기에, '넥센, 타이어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RE. NEW. ALL.'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기차 시대에 더욱 높아진 성능 요구 조건에 맞춰 나가기 위한 넥센타이어의 도전과 전기차에 특화된 기술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카메라커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해 오고 있으며 대표 타이어에는 '엔페라 스포츠 EV', '엔페라 AU7 EV', '로디안 GTX EV' 등이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신규 TV 광고와 함께 디지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 본상 수상 세종대 산학협업 'NEXERA'와 'NEXUS'



넥센타이어는 3월 4일,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NEXERA'와 'NEXUS'로 본상을 수상했다.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이 주관하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는 레드닷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72개국으로부터 접수된 약 10,800여 개의 출품작이 경쟁을 벌였으며,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132명의 심사위원단의 평가에 의해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넥센타이어가 수상한 작품들은 세종대학교 디자인이노베이션학과 학생들과 산학협업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로, 넥센타이어의 디자인 철학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궁극적인 아름다움(Ultimate Sensual, Timeless Movement)'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풀어낸 시각디자인 작품이다.

먼저, 'NEXERA'는 1942년도부터 시작된 넥센타이어의 역사를 바위의 층리(퇴적 구조에서 보이는 평행한 줄무늬)로 비유하여 표현한 창작물로, 넥센타이어의 역사를 책으로 정리한 작품이다. 'NEXUS'는 'NEXT with US'의 줄임말로, '미래(NEXT)의 주역(US)인 개인, 지역, 공동체가 넥센타이어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브랜드 디자인 결과물은 예코백, 사무용품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산학협업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 차별화된 디자인 철학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대한스키협회 '스키인의 날' 공로패 수상



넥센타이어는 2월 2일 대한스키협회 '스키인의 날' 행사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대한스키협회에서 주최하는 '2024 스키인의 날'은 강원도 모나 용평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인호 대한스키협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유승민 IOC 위원 등 각계 인사들을 비롯해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넥센타이어는 '넥센 원가드 스노보드팀' 창단 및 운영으로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넥센타이어는 2022년, 알파인 스노보드팀인 '넥센 원가드 스노보드팀'을 창단하며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에 힘써 오고 있다. '넥센 원가드 스노보드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과 함께 2023~2024 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회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상호 선수를 비롯해 홍승영, 권용휘 등 우수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로 구성됐다.

넥센타이어는 선수들의 유니폼, 보드 및 헬멧 등을 통해 브랜드를 노출하고, 스노보드를 활용한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전개하며 동계 스포츠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광고학회 '올해의 광고상' 대상 수상



넥센타이어는 3월 11일 제31회 '올해의 광고상'에서 간접광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광고상은 한국광고학회에서 한 해 동안 집행된 광고물 중 창의성, 독창성, 효과성, 영향력 등을 심사해 우수 광고 캠페인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넥센타이어는 10년째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맨시티 구단의 47년 만의 방한을 기념해 SBS '문명특급'과 지난 8월 콜라보해 제작한 콘텐츠로 간접광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콘텐츠에는 맨시티 선수 엘링 홀란드, 필 포든, 리코 루이스가 넥센타이어 브랜드가 랩핑된 버스에 탑승해 '문명특급' MC 재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오락실 투어, 팬들과의 만남, 홀란드 님은 꼴인 개그우먼 엄지윤과의 만남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았다. 이는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관심과 재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튜브, 릴스 등을 합쳐 약 66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은 넥센타이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LPGA 노무라 하루 프로 후원 연장



넥센타이어가 LPGA 노무라 하루 프로 후원을 지속한다고 3월 21일 밝혔다. 노무라 하루(일본) 선수는 2011년 LPGA 투어 데뷔를 시작으로 2016년 'ISPS 한다 호주 여자 오픈' 우승, '스윙스커투스 LPGA 클래식' 우승, 2017년 '발룬티어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숏아웃' 우승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노무라 하루(한국명 문민경)는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생활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무라 하루 선수를 후원하며 유니폼 및 모자에 브랜드를 노출, 글로벌 고객들에게 더욱 친숙한 브랜드로 다가갈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노무라 하루 선수와 동행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2024 시즌

에는 노무라 하루 선수와 함께 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라 하루 선수는 넥센타이어가 주최하는 유소년 골프 선수 대상의 '원데이 아카데미'와 소비자 대상으로 열리는 '엔페라 듀오 챔피언십 골프 대회'에서의 원포인트 레슨 등 다양한 골프 관련 행사 및 콘텐츠 제작에 함께할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부터 KLPGA 투어인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대회를 후원해 오며 골프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여해오고 있다.

HELLO NEXEN MAGAZINE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사내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의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봄호 이벤트 참여

〈헬로우 넥센〉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 코드 스캔하기



이벤트 참여하기



인적사항 기입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트콘 증정)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FERA Supreme

소리 없이
편안 하니까!

N'FERA *Supreme*
PC / SUV

NEXEN **NEXEN TIRE**
we got you



작은 수첩 위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적다 보면,
지금 이 순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버킷리스트란 인생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말을 걸어오고 있을까요?